

人間커뮤니케이션과 文化的 要因

— 文化 入類學的 接近方法의 必要性和 關聯하여 —

朴 在 煥

I

우리가 흔히 使用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낱말도 學者에 따라 또한 強調하는 側面에 따라 매우 多樣한 紐앙스를 갖는다. 于先 가장 單純하고 소박한 辭典的 概念規定을 보면 “觀念, 知識等이 傳達되고 交換되는 過程”으로 커뮤니케이션을 把握한다. 이러한 定義는 各種 情報가 傳達된다는 데 焦點을 맞춘다. 따라서 精神的 內容의 傳達와 物質的 혹은 人的 交流의를 區別한다. 한편 Charles E. Osgood의 古典的 定義가 있다. 즉 그는 어떤 한 체가 다른 對象에 對해 一定한 記號를 使用하여 영향을 미칠 때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성립된다고 規定한다. 이러한 觀點은 무엇보다 受容者에게 미치는 影響이 그 核心的 側面이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現在까지도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큰 줄기가 되고 있는 소위 說得的 커뮤니케이션의 出發을 類推할 수 있다. 勿論 他人의 態도와 觀念을 一定한 方向으로 修正, 變化시키는데 그 主眼點을 두고 있는 說得的 커뮤니케이션이 Charles E. Osgood에 依해서 처음으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用語를 그러한 側面에서 學術的으로 다루었다는 데 重要한 意味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對象에 對한 影響으로 把握하는 前記의 觀點은 C. Shannon과 W. Weaver의 보다 包括的 定義¹⁾로 相當히 潤色되기는 했지만 그 本質的 要素는 그대로 남아 各種의 政治的 宣傳, 廣告, 心理戰 등에서 實用的으로 接用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現象을, 意圖된 方向으로의 變化라는 側面으로만 局限시켜 바라볼 수 없음은 너무나 自明한 事實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視角을 넓힌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社會成立의 基礎가 된다는 것을 곧 發見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찍이 Charles Cooley는 “人間關係가 維持되고 發展되는 메카니즘”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1) 흔히 西洋에서는 Aristotle의 Rhetoric을 그 例로 든다.

또한 古代 中國의 惠施, 公孫龍 등으로 代表되는 辯論도 여기에 包含시킬 수 있다.

2) Shannon, Claude E. and Weaver, Warren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49

規定했다. 卽單純히 그 形式的 內容이나 方法뿐만 아니라, 人間關係 나아가 社會關係가 有續維持된다는 보다 包括的인 側面에 焦點을 맞추었다.

人間이 밀려들 世界에서 獨立的으로 生存하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 社會狀況下에서 他人과의 社會關係 속에서 生活하는 存在라고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關係를 形成, 發展시키는 가장 基本的 메카니즘이라고 眺望하는 觀點은 매우 妥當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人間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데 있어서 Charles Cooley의 包括的 規定은 相當한 示唆을 던져주리라고 생각한다. 勿論 우리의 이러한 想定이, 앞에서 우리가 概括的으로 分類한,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두가지 次元의 重要性에 對한 無視 乃至 輕視를 意味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本稿의 相當部分이 바로 意味의 올바른 傳達이라는 問題와 關聯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強調하려는 것은, 단지 傳達이라는 側面에서 다루든, 效果적인 側面에서 다루든, 커뮤니케이션이 社會關係의 基礎가 된다는 事實의 認識은 問題의 分析에 보다 새로운 전망을 提供해주시라는 점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大部分이 微視的 接近方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窮極의 目標인 效果的 傳達이라는 實用的 意圖와 끊임 없는 關係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學問的 關心의 轉移도 H.D. Lasswell의 圖式 內에서 云謂될 수 밖에 없었다. 勿論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過程 (특히 매스 커뮤니케이션 過程) 속에서 送信者의 立場에서 하나의 戰略的 對象으로 把握되던 初期의 受信者에 對한 研究가 受容者의 立場으로 그 焦點이 옮겨짐에 따라 나타난 學問적 成果를 過小評價하지는 않는다. 受動的 存在로서, 各種의 매스 미디어가 傳達하는 內容에 無防備狀態로 受容할 수 밖에 없는 存在로서 把握되던 初期의 受信者像이, 實際에 있어 그 나름의 一次集團과 準據集團을 가지고 그 集團의 動態 속에서 行動한다는 事實의 發見³⁾으로 크게 修正되었다는 事實은 심지어 大衆에 對한 一般的 편견, 나아가 大衆社會論의 悲觀的 觀點의 限界性を 指摘하는 有力한 反證으로까지 理解되기도 한다.⁴⁾

그러나 그 派生的 意味가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의 受容過程에 對한 論議는 從來의 圖式 內에서 그 關心이 옮겨진 것에 不適當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러한 微視的 接近方法은 조금만 視角을 넓혀도 그 限界를 나타낸다.

社會體制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歷史的 把握等은 微視的 發想의 限界를 露로시켜주는 좋은 本보기들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Charles Cooley의 보다 包括的 定義를 念

3) 所謂 Two-step flow에 依해 例證된 受容過程上的 “人間의 發見”. Joseph Klapper에 依해 綜合된 “選擇的” 反應의 受信者 把握.

4) Friedson, Eliot., “Communication Research and the Concept of of the Mass”, ed., by W. Schramm.,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 of Illionis press, 1971) pp.197~208

頭에 두면서, 커뮤니케이션을 文化라는 側面에서 새롭게 眺望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이 社會關係를 存續 維持시키는 基本 메카니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뿐만아니라 모든 人間 行爲가 文化 속에서 實現되고 定型化된다고 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樣態도 文化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想定은 너무도 當然한 것으로 된다.

文化가 다른 경우 人間相互間의 意思交換이 不可能할 뿐만아니라 部分的으로 成立될 경우에 있어서도 相當部分의 屈折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日常에서도 흔히 經驗하는 事實들이다.

言語를 使用하지 않는 意思交換에 있어서 이러한 屈折現象은 典型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屈折의 根底에는 文化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가로 놓여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이러한 文脈에서 우리는 흔히 當然한 事實로 前提하고 看過해버리는 文化的 要因을 人間 커뮤니케이션과 關聯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II

人間은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存在다. 他人과의 不斷한 關係 속의 存在가 人間の 具體的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社會關係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에 依해 維持, 發展되기 때문이다.

社會와 絶緣한 極端的인 경우의 個人은 想定할 때도, 他人과의 交流는 일어나지 않지만, 外界와의 交流, 또는 흔히 우리가 內省으로 理解하는 個人의 內的 커뮤니케이션 (intra-personal communication)은 끊임 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內省 自体도 그 個人이 社會化되는 過程에서 習得된 것이다. 漢字의 「人」이라는 낱말의 形象 自体가 關係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事實은 말할 것도 없고 儒敎의 核心인 「仁」이 바로 두사람 사이의 마땅한 原理로 把握되는 것 亦是 우리가 人間을 커뮤니케이션의 存在로 規定하는 根據를 마련해 준다. 特別히 「仁」의 實體가 마음(心) 같이 하는(如) 「恕」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그와 같은 前提는 더욱 分明해진다.⁵⁾

그러나 우리가 人間을 커뮤니케이션의 存在로서 把握할 때 그것은 單純히 철학적 思辨的 意味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實際에 있어서 각 個人은 끊임 없는 關係 및 相互作用에 依해 그 삶을 營爲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用語를 단지 言語를 통한 刺戟-反應의 体系라는 單純圖式的 限界를 넘어 部分 間의 相互作用이라는 보다 包括的인 意味로 理解한다면⁶⁾ 심지어, 하나의 具體的 個人이 세상에 태어나기 前, 即 한 生命이 受胎되는 始初부터 커뮤니케이션은 存在

5) 拙稿, "原始儒敎의 커뮤니케이션觀" 新聞研究所學報 12輯,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 1975.

6) C. Shannon과 W. Weaver의 定義.

作用해 온 셈이다.⁷⁾ 母體와 胎兒와의 不斷한 相互作用은 우리가 눈으로 觀察할 수 없는 領域에 屬하는 것으로서 客觀的, 實證的 資料를 갖기가 매우 힘든 것이지만 個人의 퍼스낼리티 形成을 둘러싼 遺傳論者와 環境論者의 계속적인 關心을 불러 일으켰던 問題임에는 틀림이 없다. 勿論 이 경우 焦點이 되는 것은 主로 母體의 條件과 새로운 生命이 一定한 關係를 갖게 되는 生物學的 相互作用이다. 그런데 이 조직과 조직 間의 關係를 커뮤니케이션의 觀點으로 파악하는 학자도 있는 것이다.⁸⁾

母體와 胎兒와의 生物學的 作用, 反作用의 關係는 우리의 論議의 범위를 벗어나는 問題이지만 흔히 胎敎라는 말로 想定되는 또 다른 相互作用의 方式이 있다.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그 客觀的 根據의 妥當성은 檢證하기가 단순한 組織과 組織間의 相互作用보다도 더욱 힘이 들지만, 이 胎敎라는 말은 產母와 胎兒 間의 心理的 相互作用의 可能性을 前提한 概念이라 할수 있다.

영양섭취에서부터 올바른 마음가짐에 必要한 各種의 禁忌事項에 이르기 까지 妊産婦의 모든 行動은 胎敎라는 暗黙의 커뮤니케이션에 依해 規制된다. 그리고 이 胎敎라는 特殊한 形態의 커뮤니케이션은 文化에 따라 相異한 形態로 나타난다.

어떻든 이러한 모든 事實은 胎兒가 世상에 태어나기 前부터 一種의 커뮤니케이션 속에 存在한다는 事實을 그 前提로 하고 있다.

出産前의 胎兒가 갖는 커뮤니케이션은 배일에 싸여 分明한 正體가 포착되기 힘들지만, 그리하여 最少限 生物學的 相互作用이라는 水準에서 만족할 수 밖에 없다하더라도, 人間이 出生後에 갖는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分明하게 觀察할 수 있고 또한 理論 定立이 可能한 것처럼 보인다. 처음 單純의 有機體的 要求에 對하여 基礎를 둔 相互作用은 새로운 人間有機體가 成長해 감에 따라 차츰 一定한 樣式 軸으로 定型化된다. 言語를 배우고 어머니와의 交流에서 各種의 포경, 제스처의 意味를 体得한다. 소위 全人格의 交流에 依해, 커뮤니케이션은 單純히 言語的 次元에서 局限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次元에서 綜合的으로 일어난다. 새로운 個體가 하나의 社會 構成員이 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社會化의 가장 核心的인 메카니즘으로 浮刻된다. 自我의 觀念形成 그 自体도, 他人에 對한 觀念 亦是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依해 定立되는 것이다.⁹⁾

成人이 되고 난 후의 커뮤니케이션에 對해서는 새삼 言及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日常生活 그 全部가 自我와 外界(他人, 對象等)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너무도 分明한 事實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日常的인 말은 勿論, 갖가지 行爲는

7) Ruesch Jurgen and Kees Weldon, "Nonverbal Communic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1956), p.18

8) Weiss, Paul, "Cell Interaction" (New York 1963)

9) Duncan Hugh D. "Communication and Social Order." (New York Oxford Univ. 1970) pp.76~80

모든 그 自体의 메시지를 傳達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不可避性에 對해 Paul Watzlawick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바꾸어 말하면, 行爲아닌 것은 없다. 혹은 더욱 要約해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行爲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움직임이나, 不動 말이나 침묵, 이 모든 것은 다 메시지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他人들에게 影響을 미치며 또한 이들 相對方의 사람들은 이들 커뮤니케이션에 反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있는 커뮤니케이션의 網 속에 存在한다.

그러나 人間의 關係는 刺戟, 反應이 即刻的으로 連結되는 反射的 行爲體系가 아니라는 事實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그것은 人間의 行爲가 思考過程을 통해 選擇的으로 일어난다는 常識的 前提에서 緣由하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人間行爲처럼 反射的인 行爲도 드물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關心을 가지는 것은, 다른 行爲과 마찬가지로 人間의 커뮤니케이션 樣式도 既存의 文化에 依해 거의 決定된다는 事實에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當然하고 진부하기조차 한 이 命題가 實際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모든 群集生活에 는 一定한 樣式의 커뮤니케이션이 存在한다. 우리는 별의 세계에 일어나는 미묘한 交流關係, 침팬지世界의 커뮤니케이션 方式에 對한 研究들을 통해서 人間에게만 局限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遍在性을 確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動物의 커뮤니케이션과 人間의 相互意思疏通關係가 同一次元에서 把握 可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 動物의 커뮤니케이션이 生物學的 本能에 依해 決定되는 데 反해 人間의 相互作用은 學習된 行爲體系 即 文化에 依해 거의 全的으로 定型화된다는 事實에 基因한다. 勿論 人間의 行爲樣式이 全的으로 生理的 바탕과 絶緣된 狀態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人間이 「萬物の 靈長」임을 자랑하는 文化의 各 構成物은 生理的 要求에서 出發한다¹¹⁾ 테크놀로지가 그러하고 넓게 말해 經濟制度가 人間 有機體의 生存이라는 原初的 要求위에 구축된 것임은 누구나 周知하는 事實이다. 結婚制度 또한 例外가 아니다. 그러나 Malinowski가 指摘한대로 人間이 動物과 다른 점은 生物學的 欲求를 채우고도 人爲的인 環境의 조성을 통해서 充足시킨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欲求 充足의 方式은 時間을 통해서 傳承되어 發展되며 長期間에 걸쳐 學習된다. 哺乳類 動物 中에서 人間이 成人으로서 自立하는 데 必要한 時間의 길이가 他動物

10) Watzlawick and others.,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7 pp.48~49

11) Malinowski B., "A Scientific Theory of Cultur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4194 p.36

과 比較될 수 있을 程度로 길다는 事實은 文化가 人間行爲에 作用하는 拘束力의 얼마나 큰가를 端的으로 말해 준다. 長期間에 걸친 社會化(Socialization)의 過程에서 習得된 行爲樣式은 生物學的 基本欲求에 依해 單純히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 欲求 自体까지도 抑制하면서 個人이 屬해 있는 特定 社會의 文化體系에 依해 定型化된다. 父母가 子女에게 注入시키는 各種의 行爲樣式, 成長해 가는 동안 各 個人이 內面化시키는 것까지 規範들은 모두 그가 屬해 있는 社會의 既存文化에서 비롯한다.

이와 같이 文化는 새로운 社會構成員이 태어나기 前에 미리 過去로 부터 存在하고 있는 環境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個체가 特定 社會의 構成員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社會의 文化를 他人과 學習을 통해서 共有함을 意味한다. 아프리카에서, 갓난 아이일 때 실종된 어린이가 그후 탐험대에 依해 發見되었을 때 그는 이미 人間가 固有하게 갖는 言語能力은 말할 것도 없고 直立하지도 못한 채 다른 고리라들과 꼭 같이 네발로 걸어나며 고리라들이 지르는 비명으로 意思를 交換하고 있었다는 報告는 人間生活에 있어서 學習된 行爲樣式 即 文化가 갖는 位置가 얼마나 絶對的인가를 雄辯으로 나타낸 實例였다.

人間이 他動物과 區別되는 가장 뚜렷한 이유가 이처럼 生物學的 欲求를 人爲的인 環境의 助成에 依해 充足시키며 過去로부터 傳承되는 生活方式를 習得하여 內面化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人間行爲에 對한 文化의 拘束性이야말로 動物과 人間間的 가장 基本的인 差異의 出發點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이 準據하는 環境은 單純한 自然環境이 아니라 文化環境이기 때문이다.

Ⅰ

앞에서 우리는 人間存在가 다름아닌 커뮤니케이션의 存在이며 人間의 다른 모든 活動과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또한 그 個人이 몸담고 있는 文化에 依해 크게 影響을 받는다는 事實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一般的 論議가 具體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過程에 있어서 어떻게 適用되는가 考察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于先, 우리의 視野를 커뮤니케이션이 成立되는 가장 原初的인 段階에 局限시켜서 論議하는 것이 便利하다.

커뮤니케이션 活動은 平面的으로 把握할 때 흔히 H.D. Lasswell의 圖式대로 送信者, 채널, 內容, 受信者, 效果等の 要素로 構成된다. 그리고 이러한 圖式은 人間間的 相互交流(personal communication)에서 뿐만아니라 매스 커뮤니케이션 現象에도 一般的으로 適用되고 있다. 그러나 所謂커뮤니케이션의 이 五個要素가 모든 경우의 커뮤니케이션에 언제나 包含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가까운 예를 들어 人間內部的 反省-이것을 對人間間的 交流

(inter-personal communication)에 對比하여 intra-personal communication이라고 부른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커뮤니케이션의 主体인 送信者와 客体인 受信者는 그 區別이 不可能하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結果로 나타나는 效果가 云 謂될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렇지만 一般的으로 말해서 前記한 五個要素는 커뮤니케이션 成立의 가장 基本的 要素라 할 수 있다. 그 中에서도 우리는 送信者, 內容, 受信者가 이루는 基本構造에 우리의 關心을 集中시킨다.

이때 送信者는 送信者대로, 受信者는 또한 受信者대로 그 特有的 多様な 퍼스널리티를 갖게 됨은 勿論이다. 커뮤니케이션의 內容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같은 內容이라 하더라도, 그 前後의 配置 問題, 表現方法의 問題에 따라 매우 多様な 뉴앙스를 지니게 된다. 특히 채널과 結合될 때 內容은 相當한 變모를 겪게 마련이다. 말로서 傳達될 때와 書面으로 나타낼 때 內容은 相當한 潤色을 받게 된다. 非言語的 要素 即 表情이나 간단한 제스처어로서 밖에 意思傳達를 할 수 없는 極端의인 狀況下에서는 自然 복잡한 內容의 커뮤니케이션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커뮤니케이션의 構成要素 各各이 매우 複合的인 文脈을 갖게 됨을 알 수 있고 지금까지도 所謂 送信者 分析, 內容分析, 等 各 構成要素에 따른 項目別 研究가 論議되는 까닭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各 各의 構成要素에 對한 研究가 充分히 이뤄진다고 해도 各 構成要素間의 無數한 結合方式에 對한 綜合的 結論에 까지 이르는 데는 기왕의 研究보다 더 한 難關이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감을 B. Berelson의 다음과 같은 陰鬱한 목소리에서 典型的으로 느낄 수 있다.

「Some kinds of communications on some kinds of issue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some kinds of people under some kinds of conditions have some kind of effects」¹²⁾

이처럼 各 構成要素間의 無數한 結合方式은 커뮤니케이션 效果測定을 거의 不可能한 것으로까지 물고 간다. 뿐만아니라 커뮤니케이션 研究가 벽에 부딪혔다는 危機意識과 關聯하여 B. Berelson의 句節은 한 동안 引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새삼 B. Berelson의 句節을 꺼집어 내는 것은 單純히 커뮤니케이션의 構成要素間의 結合方式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진부한 主張을 되풀이 하려는 意圖때문이 아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研究上의 展望이나 그 難點을 指摘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이들 各 構成要素가 相異한 結合方式을 取하게 되는 基本 狀況에 關해 論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 커뮤니케이션이 成立되는 基本 條件에 關한 問題인 것이다. 다시 H. D. Lasswell의 그 古典的 圖式, 그 中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三大要素 即

12) Berelson, B.,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 in W. Schramm (ed) Mass Communication (Urbana, 1960) p.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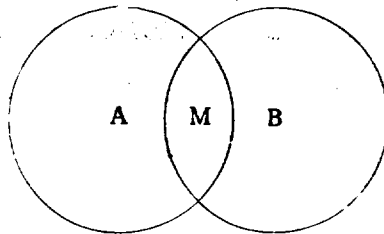
送信者, 메시지, 受信者를 놓고 생각해 보자.

一般的으로, 커뮤니케이션은 送信者가 보내는 메시지를 受信者가 受容할 때 成立된다. 그러나 受容이 언제나 意圖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送信者가 보낸 意味의 一部分 受信者에게 觀擇적으로 받아 들여 진다. 極端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送信者의 意圖와 受信者의 意味把握이 正反對의 立場에서 行해지는 때도 있다. 論理的으로 말해서 送信者의 意味 (connotation)와 受信者가 受容한 意味가 完全一致될 때 우리는 그것을 100%의 커뮤니케이션이라 지칭할 수 있다. 反對로 送信者가 使用한 심볼의 메시지가 受容者가 받아 들인 內容과 전혀 關係가 없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實際上 成立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現實的으로는 그 中間에 구체적 커뮤니케이션이 위치 한다.

그러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上的 혼란 및 不完全은 어디서 비롯하는 것일까?

여기에 對해 W. Schramm은 送信者와 受信者가 메시지의 意味에 對해 갖는 各者의 準據틀(frame of reference)上的 差異에서 端緒를 잡는다. 個人의 準據틀이 그의 經驗에서 비롯함은 勿論이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單純한 形態로 圖解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A라는 사람의 經驗世界와 B라는 사람의 經驗世界가 겹치는 領域 M을 想定할 때, 이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M이라는 領域 內에서 비로소 可能하다는 것이다.¹³⁾

이 때 A와 B의 經驗세계가 共有되는 領域이 없을 때, 다시 말해 M이란 領域이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成立될 수 없다. 만약 A의 經驗世界와 B의 經驗의 場이 겹치는 범위, M이 되질 수록 두 사람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圓滑하게 이뤄진다고 假定할 수 있다. 事實, 平生을 같이 생활해온 老夫婦 사이에는 市中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 間의 曲折된 意思傳達가 일어나지 않는다. 無言中の 눈빛 하나만으로 그들 사이에는 充分한 커뮤니케이션이 成立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共通經驗의 場이야말로 人間

13) Schramm, W. "The Nature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n W. Schramm and D.F. Roberts (ed),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rs Communication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71)

커뮤니케이션 成立의 前提條件이 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메시지의 表面的 意味보다 「말 바깥의 얘기」¹⁴⁾로 흔히 指摘되는 非明示的 要素 乃至 非言語的 要素 (non-verbal communication)가 더 重要的 意味를 지닐 경우 共通 經驗의 場은 決定的 要因이 된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成立의 前提條件이 되는 이러한 共通經驗의 場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되는가?

우리는 가끔 個人的 特殊性을 지나치게 強調한 나머지 個人과 個人 間의 完全한 意味에 있어서의 理解는 成立될 수 없다는 주장을 듣는다. 換言하면, 모든 個人은 저 나름대로의 獨特한 經驗世界를 갖기 때문에, 그가 準據하는 意味體系가 他人과 相異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意味 傳達 亦은 元來의 意圖대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 事實, 社會속의 各 成員들은 엄밀한 意味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同一한 經驗을 共有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獨特한 經驗의 集積이 바로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및 認知體系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事實 또한 社會心理學的 根據를 갖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社會 存立의 基礎가 되는 各種 社會關係의 存在를 否認하지는 않는다. 어떤 形式으로든지 커뮤니케이션에 바탕을 둔 社會關係는 維持되고 있기 때문이다. 100%의 完全한 커뮤니케이션이 成立될 수 없다는 主張은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個人的 特殊性을 너무나 強調한 나머지 具體的 人間을 社會와 完全히 獨立된 存在로 想定하는 根本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人間을 社會類型의 틀 속에서만 把持可能하다고 主張하는 決定論을 받아 들일 수 없듯이 具體的 個人이 社會와 絶緣한 체로 社會 바깥에서 獨立해서 存在할 수 있다는 어떠한 發想도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한 觀點은 마치 허말랴의 雲人을 自己 社會의 構成員과 同一視함을 意味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社會는 그 構成員 間에 一定한 範圍의 共通性을 前提로 하고 成立한다. 이 共通性이 다름 아닌 文化인 것이다. 社會의 各 構成員이 그 特有的 經驗을 쌓으면서도 타인과 交流할 수 있는 根據는 各 構成員을 함께 連結시키는 行爲樣式 即 文化가 있기 때문에 可能的 것이다. 勿論 同一 文化 內에서도 그 共通經驗의 場이 一致되면 될 수록 더 폭 넓고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 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一定한 意味의 準據들을 提供하는 文化的 背景이 다를 때,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성립되지 않거나 屈折된 狀態로 進行되리라고 쉽게 想定할 수 있다. 특히 이 때 커뮤니케이션 上의 혼란은 個人的 心理的 特性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文化에서 緣由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고 文明人은 당연한 交通手段으로 보는데 반해 未開人들이 나르는 큰 새(鳥)로 받아 들일 때 나타나는 認知上의 差異, 그에 따라 派生되는 커뮤니케이션 上의 屈折現象은 그 文明人과 未開人의 心理的 次元으로는 결코說明될 수 없는 것이다.

14) 李奎浩, 「말의 힘」 (서울 第一出版社, 1974) pp.46~56.

이와 같이 우리가 個人的 心理的 特性으로 看做하는 많은 部分이 實際에 있어서는 그가 屬한 文化에 依해 定型化된다.

따라서, 個人 各者가 갖는 意味體系가 그가 屬한 文化로부터 學習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이러한 各 者의 準據들이 서로 共有되는 領域이 마련될 때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고, 나아가 그 共通經驗의 場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圓滑하게 이뤄진다고 할 것 같으면, 各 個人이 갖는 準據들을 單純히 心理學的 觀點에서 個人한 次元으로 局限시켜 볼 것이 아니라 그 個人이 屬하고 있는 具體的 文化體系 속에서 立體的으로 把握하는 것이 보다 有益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IV

人間과 人間의 交流(human communication)는 심볼의 單純한 交換이 아니다.

그것은 具體的 個人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世界와 또 다른 世界와의 만남이며, 두 世界間의 相互作用이다. 그리고 이 相作用은 두 世界의 共通性이 前提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 가능함을 알았다. 그것이 다름 아닌 共通經驗의 場이다. 한 사람이 使用한 심볼의 내용은 그가 暗默的으로 依據하고 있는 그 自身の 意味體系에 依해 決定되고, 이 意味體系는 바로 그 사람의 經驗에 依해 形成된다고 할 때, 人間커뮤니케이션은 심볼의 次元을 넘어서 意味體系의 交流며 그 意味體系의 바탕을 이루는 經驗世界가 共有될 때 비로소 성립된다는 事實은 너무도 當然한 結論으로 提示된다. 그런데 이 共通經驗의 場이 視野를 넓힐 때 바로 文化라는 領域 속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文化는 바로 그 사회 構成員의 共通된 生活樣式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當然히 人間커뮤니케이션에 作用하는 文化的 要因의 重要性에 對한 問題가 提起된다. 勿論 커뮤니케이션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서 文化가 차지하는 比重을 一括的으로 斷定할 수는 없다. 文化가 갖는 重要性도 問題를 接近하는 方式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極端的인 경우 文化的 背景을 同一한 常數로 놓을 때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差異는 文化外的 變數에서 抽出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文化的 要因에 對한 認識은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文化的 要因의 統制 上에도 限界는 存在한다.

그러면 어떠한 文化的 要因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Edward, T Hall의 主張에 새삼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는 그의 有名한 著書 “The Silent Language”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文化體系로 規定하고 있다. 卽 그에 있어서는 文化는 곧 커뮤니케이션으로 把握되고 있는 것이다.¹⁵⁾ 왜냐

15) Hall, E.T.,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1959) Chapter 5.

하던 言語에 의한 意味傳達뿐만 아니라 人間生活 全領域이 곧 커뮤니케이션에 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은 앞에서 引用한 Paul Watzlawcick의 커뮤니케이션의 不可避性에 對한 論議를 想見시킨다. 한편 人間間的 커뮤니케이션을 各種의 交換 形態로 把握하는 프랑스 人類學者 C. Levi-Strauss의 主張을 생각나게 한다.¹⁶⁾

어쨌든 E, T, Hall에 있어서는 明示된 意味傳達보다 非言語的 要素로 代表되는 人間生活 그 自体가 커뮤니케이션으로 認識된다.

예를들면, 會社에서 歸家한 男便의 心中을 把握하는 女便은 單純히 男便이 말하는 表面的 말에 對한 反應해서 알아 보는 것이 아니다. 그의 表情, 코트를 벗는 態度, 視線 等 오히려 言語外的인 메시지에 의해 더 正確하게 把握하는 것이다. 即 第三者의 눈에는 포착되지 않은 微妙한 징후를 빠짐 없이 看破하여 그 男便의 正確한 心中을 判斷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發하는 메시지는 明示되는 정도에 따라 또한 그것이 表現되는 文脈에 따라 매우 多樣的 意味를 나타낸다. E, T, Hall은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를 3가지 構成要素로 나누어 考察하고 있다.

即 Set-Isolate-Pattern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범주는 言語學의 구성요소에서 類推한 것이다. 于先 Set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知覺에 제일 먼저 파악되는 모든 項目들이다. 예를 들면 책상, 의자 等과 같이 所謂 이름을 가진 것으로서 그 自体가 다른 項目들과 쉽게 區別이 되는 요소다. 물론 이러한 Set에는 單純히 책상, 의자 等과 같은 工作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單純한 行爲 等 소위 다른 文化적 項目과 區別되는 一切의 獨立的 文化項目이 다 포함된다.

文章의 構造로 비교해 볼 때 單語와 같은 位置를 占한다. 그러나 이들 個個의 項目은 그 自体로서 充分히 그 意味를 把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所謂 全体文脈 속에서만 비로소 그 完全한 意味를 露出시키기 때문이다. “고맙다”는 말은 그 自体의 意味는 他人에 對한 感謝에 局限되는 것이지만, 그 말이 使用되는 具體的 文脈에 따라서는 오히려 正反對의 意味를 나타낼 수 있다. 다른 인간의 行爲도 마찬가지다. 獨立된 行爲은 그 自体의 意味를 갖는 Set이지만 그 行爲(Set)이 行해지는 文脈에 따라 傳達되는 意味가 전혀 相異한 것으로 나타나게 됨은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자주 經驗하는 바다. 이와 같이 人間커뮤니케이션 上の 表面에 나타나는 各種의 Set는 그것이 使用되는 全体文脈을 통해서 把握할 때에만 참된 모습을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Set에 意味를 賦與하는 要素 即 文脈을 Pattern이라고 부른다.

16) Leach Edmund, "Claude Levi-Strauss" (The Viking press, New York, 1970) pp.42~43

특히 Levi-Strauss는 人間社會의 가장 基本的인 象徴的 交換은 男,女間的 交流形態라고 分析하고 있다.

文章에서는 Syntex가 이에 相當한다. Set와 Pattern이 比較的 쉽게 把握되는 메시지의 構明要素임에 반해 또 하나의 重要 範疇인 Isolate는 가장 捕捉하기 힘든 要素다. 왜냐하면 Isolate는 Set를 구성하는 基本前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文章 構造에 있어서는 Sound에 相當한 것이라고 E. T. Hall은 說明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로 文化가 論議될 경우, Set가 無數한 文化的 事實, 눈에 띄게 띄는 項目임에 反해 Isolate는 全体 文化構造를 反映하는 基本前提가 되기 때문에 把握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 Isolate야말로 文化가 相異なる 사람들 間의 커뮤니케이션에 흔히 나타나는 各種의 屈折現象을 說해 明주는 關鍵이 된다. 筆者 나름대로 숫자에 관한 例를 하나 들어 보자.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4라는 숫자를 매우 싫어 한다. 심지어 1, 2, 3의 일련 번호가 3에서 바로 5로 건너 뛰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어떤 고급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의 層數表識板에, 다른 層은 모두 1, 2, 3... 등의 숫자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유독 四層의 경우 “F”字로 表示되어 있다. 만약 西洋의 外國인이 그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하자. 차레로 켜지는 層數表識板의 數字가 四層에만 오직 “F”로 表示되어 나타나는 까닭을 알 수 없을 것이다.

“F”가 英語의 “Fourth”의 大文字인 줄은 짐작하겠지만 왜 4層의 경우만 “F”라는 異質의 기호를 使用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納得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F”라는 기호는 E. T. Hall의 分析에 의하면 Set에 該當된다. 그러나 Set “F”는 韓國에서는 4라는 數字를 될 수 있는 限 피하려고 한다는 文脈 속에서 把握할 때만 비로소 意味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4라는 數字가 韓國에 있어서는 不運과 連結되는 數字라는 그 보이지 않는 前提가 理解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4라는 數字 대신에 “F”라는 大文字가 구태어 使用되는 까닭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內容은 그 메시지가 意味를 賦與받을 全体文脈과 그 메시지가 基礎하는 基本前提를 總體的으로 把握했을 때에만 本來의 意味대로 受容된다. 人間間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表面的 言語傳達의 水準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言語外的 要因 特히 文化的 要因에 의해 크게 左右될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文化體系로 接近하는 方法은 매우 有益한 示唆를 던져 다준다.

이러한 重要性은 文化的 背景이 다른 사람들 間의 相互作用에 있어서 銳角의 으로 나타난다. 그럴 경우 人間間의 커뮤니케이션을 決定짓는 것은 會話를 통한 말의 傳達이 아니라 外界를 對하는 基本的 觀念의 差異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例를 몇가지 들어 보자¹⁷⁾

17) E. T. Hall은 主로 時間, 空間의 두가지 側面에서 그것이 人間커뮤니케이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例를 들어 상세히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비단 空間 時間의 觀念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外界를 파악하고 바라보는 認識體系 全體가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에 有形, 無形으로 作用, 拘束한다. 特히 커뮤니케이션 自體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問題는 各 文化에 따라 다른 뿐 아니라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重要 要因이 된다.

첫째로 時間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影響을 들 수 있다. 말로서 表現되는 內容보다 時間을 處理하는 方式에 의해 全体 意味를 傳達할 때가 있다. 政治人들의 會談에서는 흔히 어느 누구도 먼저 會談場所에 들어가서 相對方을 기다리는 低姿勢를 取하려 하지 않는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의 不可避한 約束은 定해진 時間보다 늦게 나타남으로써 相對方에게 自己의 뜻을 傳하는 例는 市井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行動樣式이다. 始作된지 얼마 되지 않은 男女間의 交際에는 約束 時間의 遵守, 그에 對한 時間觀念이 백마디의 변명보다 더 決定的인 影響力을 발휘한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코리언 타임”이라는 말은 그대로 韓國人이 一般的으로 時間에 對해 갖는 생각의 典型을 잘 나타낸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時間의 取扱만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具體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時間의 狀況 그 自体가 바로 人間 相互間의 交流에 어떤 內容을 規定해 줄 때가 있는 것이다. 한 밤 중에 걸려오는 電話는 大部分의 경우 매우 불길한 內容이 담겨져 있거나 위급한 電話이기 쉽다. 만약 이 때의 電話의 內容이 너무나 日常的인 것일 때 電話를 받은 사람은 불쾌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하지만 同一한 文化体系에서 時間이 意思傳達에 커다란 役割을 遂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文化가 相異한 사람間의 커뮤니케이션에서 時間의 變數가 作用하는 影響이 더 決定的이고 劇적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때의 意思疏通은 時間에 관한 限 전혀 다른 各者의 意味体系 위에서 行해지기 때문이다. 時間을 統制하고 모든 일을 時間表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習慣化된 사람과 일주일 以後의 일은 人間이 알 수 없는 일이며 오직 神만이 알아서 處理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文化圈의 構成員間에는 未來에 對한 共通 說計는 거의 合一點을 求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上의 斷絶乃至 屈折現象은 모두 時間에 對한 基本的인 認識의 差異에서 비롯한다. 때가 성숙되어야 일은 始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란 것은 언제나 始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行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흔히 美國人들은 時間을 마치 물건처럼 取扱하고 分割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金錢으로까지 換算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또한 時間에 對한 觀點이 未來指向的이지만 그 未來에 該當하는 時間單位가 比較的 손으로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짧다고 한다. 또한 迅速性を 높이 評價한다. 반면에 Navajo인디언과 같은 文化에 있어서는 未來보다 現實的인 것이 보다 重要하다. 뿐만아니라 우리 선비들이 즐겨 使用했던 「君子不急」이라는 말은 언제나 迅速한 것만이 能事로 삼지 않았으며 때에 따라서는 경계하기까지 한다는 時間觀念上의 差異를 例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時間變數는 커뮤니케이션에 직접, 간접으로 影響을 미친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서 空間을 들 수 있다. 스크린에 가득찬 넓은 畫판과 또 그에 對立되는 大都市의 人波는 解說者가 굳이 說明하지 않아도 觀客에게 미

리 어떤 內容을 暗示해 준다.

對等한 關係의 會談者들은 주로 圓卓을 使用한다. 어느 式場에서든지 귀빈석은 특정한 사람들을 爲해 마련되어 있다. 새로운 社員이 들어오면 事務室의 책상배치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는 모두 空間이 우리들의 生活에 作用하는 극히 적은 例에 不過하다. 낯속말을 나누는 사람들을 볼 때 第三者는 그들이 매우 비밀스런 內容을 주고 받는다 고 생각하게 된다. 떨어져 걷는 男女는 팔장을 끼고 걸어가 는 男女와는 다른 메시지 를 他人에게 준다. 中共을 研究하는 學者들은 公式席上에 中共의 重要政治人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不在의 事實에서 中共의 政治動態를 分析해 내는 端緒를 捕捉한다. 이처럼 空間이 우리에게 주는 意味는 다른 表現的 內容보다 더 큰 때가 있다. 어떤 事務室을 찾는 外來客이 問議事項이 있을 때 그는 바로 部長席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쪽에 제일 가까운 사환이나 末席의 社員쪽으로 간다. 이러한 空間意識이 文化에 따라 달라짐은 勿論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南向으로 집이 위치한 것은 좋아 한다. 墓의 位置에 따라 家運이 決定된다고 믿는 사람에게 墓를 옮기라고 說得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처럼 空間이 對한 基本的 태도는 有形無形으로 커뮤니케이션을 制約한다.

그러나 空間과 時間的 次元만이 커뮤니케이션의 領域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性別의 區分이 심한 社會에서는 自由롭게 男女가 어울릴 수 있는 社會와는 커뮤니케이션 行態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長幼有序」의 生活原理가 支配的인 社會는 어린이를 어른과 對等한 人格體 乃至 成人視하는 社會와는 그 意思傳達樣式이 同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事實(客觀的 事實)은 事實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生活態度가 支配的인 文化와 狀況에 따라 事實은 은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文化 間에는 人間相互活用の 形態가 相異하리라 想定할 수 있는 것이다. 自己의 삶은 自己가 主体며 自己가 開拓해가는 過程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運命은 하늘의 뜻에 依해 이미 決定되어 있으며 人間이 變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文化圈의 人間間에는 一致되지 않는 行動의 領域이 있다. 前者의 경우 가까운 사람이 不治의 病에 걸렸을 경우 그는 事實을 本人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後者의 경우 구태어 그 事實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感情表出에 對한 相異한 基準이 커뮤니케이션에 그대로 作用하는 경우도 있다. 반가운 사람에게 아무리 그 반가움을 表現해도 無禮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쁘고 반갑다 해도 직접적인 表出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行動을 誤解할 확률이 높다. 또한 美國의 퍼스트 레디가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보인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가장 온당한 行動樣式이었다고 確信하는 사람은 中共의 巨物級 政治人들이 毛澤東의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을 보고 당황하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人間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單純히 表明된 言語 및 其他의 象徴보다 흔히 當然한 것으로 看過되기 쉬운 暗黙的 要素가 더 重要한 役割을 遂行한다.

이리하여 모든 文化的 體系는 人間커뮤니케이션 성립의 前提가 되는 것이다.

V

대체적으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實用的 要求에 의해 出發했다.

現代的 意味의 各種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對한 學問的 관심은 테크놀로지의 發達에 힘입은 새로운 媒體의 出現, 그와 아울러 一, 二次 世界大戰 中の 心理戰 등의 實際的 要求와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人間커뮤니케이션의 起源을 古代Greece의 rhetoric에서 찾는 發想 또한 同一한 文脈에서 把握 可能하다. 이와 아울러 初期의 學問的 接近方法도 主로 社會心理學的, 政治學的 側面에 局限돼 있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過程의 具體的 個人이 社會와 遊離된 存在가 아니라 그 나름의 準據集團을 갖는다는 所謂「人間發見」은 初期의 單純論을 크게 修正, 補充했다.

하지만 이러한 「人間發見」의 연구는 小集團論의 水準을 아직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觀點 亦是 範圍內에 머물러 있는 實情이다.

여기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傳達者 및 受容者의 次元으로 局限해서는 결코 立體的으로 把握될 수 없음을 指摘했다. 그것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眞空管 속에 이뤄지는 人間行爲가 아니라 人間의 몸 담고 있는 文化的 環境 속에서 行해진다는 너무나 기초적인 事實의 發見에 기인한다.

그러면 이러한 文化的 要因의 重要性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관련하여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첫째로 非言語的 交流(non-verbal communication) 연구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對人間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表面的으로 傳達되는 말보다 非言語的 要素에 의한 意味潤色이 더 중요한 때가 있다. 이러한 非言語的 要素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當事者의 文化的 背景에 對한 認識 없이는 正確하게 把握할 수 없다. 특히 1965年 以後 美國커뮤니케이션 研究動向에 non-verbal communication 分野가 急増하고 있는 事實은¹⁸⁾ 커뮤니케이션 研究와 文化的 要因間의 밀접성을 間接적으로 示唆하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둘째로 文化間커뮤니케이션(cross-cultural communication) 연구에 있어서는 文化的 要因의 分析 없이는 그 分野 自体가 成立될 수 없다. 여기서 他文化間의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國家的 單位만을 뜻하지 않음은 勿論이다. 下位文化에 다른 文化가 한 國家內에서도

18) 金圭煥, “美國, 日本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最近 十年間의 動向” 新聞研究所學報 12輯 서울대학교, 新聞研究所, 1975.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實驗心理學的, 微視的 方法에 있어서 文化的 要因의 分析이 갖는 重要性을 指摘할 수 있다. 어떠한 有意味한 結果를 두고 올바른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그 結果가 調査方法上에서 나오는 것인지, 文化的 差異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區別해야 하고 이때 한 文化的 認識體系에 對한 事前的 知識 없이는 그 區別 自体가 不可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他文化間的 커뮤니케이션 研究와 關聯해서 所謂 近代化와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文化的 要因의 重要性이 있다. 이것은 元來 嚴格한 意味에서 社會變動과 關聯을 갖는 것이지만 既存社會의 文化的 背景에 對한 知識 없이는 發展戰略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研究는 形式的 圖式에 不過하기 쉽다.

이와같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文化的 要因의 重要性은 漸增되고 있다. 그것은 보통 當然한 것으로 看過해 온 文化라는 環境이 人間 存在의 바탕을 이룬다는 事實의 認識에서 비롯된다. 從來의 社會學에서 人間 커뮤니케이션에 對한 集中的 研究가 없었던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社會關係의 基礎가 된다는 事實을 너무도 當然視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이 그 社會存立의 基本 메카니즘이 되고 또한 다른 모든 人間活動과 마찬가지로 끊임 없이 既存의 文化體系에 依해 影響받는다 고 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文化的 要因에 對한 研究는 너무나 當然하고 必然的인 것으로 대두된다.

勿論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現象을 文化的 要因의 分析으로 全部 說明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적어도 個人的 特性을 常數로 한다는 重要한 假定이 前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同一 文化 內의 個人的 差異가 언제나 無視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文化에 對한 眺望은 우리의 視界를 넓혀 준다.

人間은 다름 아닌 무수한 關係 속에 生活하는 커뮤니케이션의 存在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研究한다는 것은 곧 人間을 研究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이렇게 볼 때 커뮤니케이션을 單純히 社會心理學的, 政治學的 次元에서 만이 아니라 文化人類學的 側面에서 照明해 보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對해 우리의 理解를 깊이 하는데 相當한 도움을 주리라고 想定하는 것이다.

19) Duncan H.D., "Communication and Social Order" (London, Oxford Univ. Press, 1970)

Introduction 참조, Duncan은 이 책에서 Simmel, Malinowski, Dewey, Mead, Freud 등의 論理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되는 諸論議를 면밀히 分析하고 있다.

20) Schramm, W. "The Nature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n W. Schramm and D.F. Roberts (ed)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1971)

— Summary —

A Study on Cultural Factors in Human Communication

by Park, Jae-hwan

Communication is not defined in a single tone. But its definitions may b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category, often discovered in many dictionaries, is based on the idea of "transfer" of information. Second group rests on the idea of "influence or effect" rather than a transfer of anything. Charles E. Osgood is representative scholar, and this viewpoint is dominant even today. Third definition is noteworthy for its emphasis on human relationship.

For example, sociologist Charles Cooley defined communication a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human relations exist and develop. Our concept of communication is based on this last definition.

Generally communication process consists of the following five elements; communicator, channel, message, communicatee, effect.

But these five elements are not necessarily included in any situations.

Often we cannot specify the effect of a given communication, and sometimes communicator may be overlapped with communicatee as in the case of intra-personal communication. However it can be said that communicator, message and communicatee are the minimum components of human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is completed if one (communicatee) understands the message of which connotation is given by the other (communicator). But the problem is that one understands the other's message only through his own frame of reference which is determined by his experiences.

If one's cognitive systems are similar to the other's, communication may be more effective and there will be no more misunderstanding.

From this we can deduce that the field of common experiences is prerequisite to any

human communication.

In addition, it is more important that this field is conditioned and provided by cultural system as any people's way of life.

Therefore we can analyze human communication in the context of cultural system. Anthropologist Edward. T. Hall investigated this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system and communication. He treats communication system as cultural systems in his "The Silent Language". Of course, we know that human communication cannot be understood exclusively by this viewpoint. Moreover, given a common cultural background, the variance in human communications must be explained in other context.

But even then grasping cultural factors is necessary to broaden our perspective.

Reflection on cultural aspects of human communication may bring more useful results in the following areas,

- (1) Non-verbal communication
- (2) Cross-cultural communication
- (3) Nat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 (4)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in experimental studies.

If communication is something people do, it has no life of its own, and to study communication is to study people, then it is too reasonable that we must give our attention to the cultural aspects of human communication.

For this the perspective of cultural anthropology may be more helpful.